

# 서울형 작은학교 12개교로 확대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발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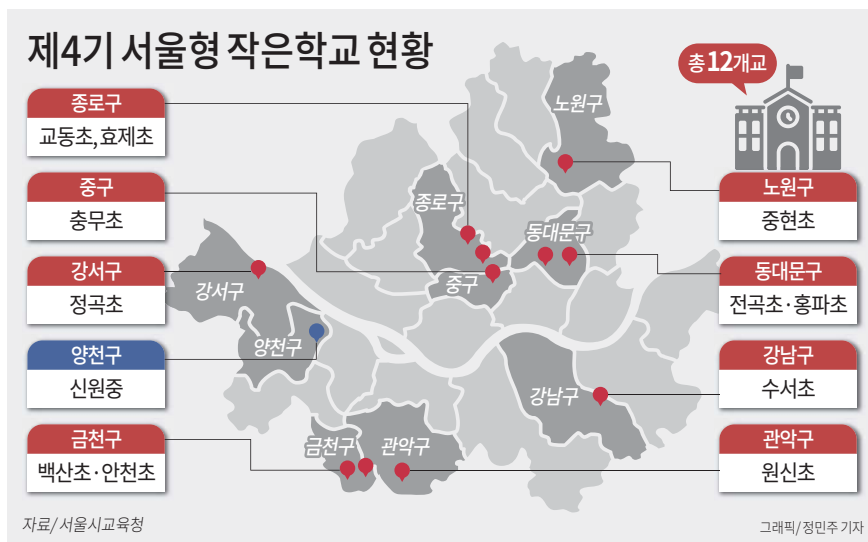
서울교육청, 도심 작은학교 확산  
8→12개교… 중학교 1개교 포함  
3년간 인적·재정·행정 지원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부터 3년간 운영할 ‘제4기 서울형 작은학교’에 초·중 12개교를 새로 선정하며 소규모학교 지원과 도심 속 작은학교 모델 확산에 나선다. 기존 8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되며 운영 규모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제4기 서울형 작은학교’를 2026학년도부터 2028학년도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수에는 처음으로 중학교 1개교가 포함되며, 학교급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된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서울형 작은학교 정책은 2017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제1~3기를 거치며 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육·문화예술·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넓히고 적정규모화에 기여해 왔다. 올해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며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제4기 운영계획도 보완·정비됐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제3기 과정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 통학구역 외 유입생 비율, 학생 수 추이 등 수요·효과 분



석 결과가 종합 반영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11월 240명 이하 초등학교와 300명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았으며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 ▲역사적 상징성 ▲지리적 위치 ▲학생 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제4기 서울형 작은학교’에는 3년간 인적·재정·행정 부문에서 단계적 지원이 제공된다.

인적 지원은 스포츠강사 우대 배치, 2차년도부터 희망 교사의 우선 배치를 위한 교원 초빙 운영, 일부 학교 연구학교 지정 시 유공 교원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된다.

재정 지원은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연 2000만원을 지원해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돕는다.

행정 지원으로는 학교 맞춤형 컨설팅 제공,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구역 외 전·입학 허용을 통한 학생 유입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서울도심 속 작은학교’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작은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해당 학교로 문의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5년 1월, 서울형 작은학교 운영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간 균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라며 “서울형 작은학교 정책을 통해 소규모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적정규모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jh@metroseoul.co.kr

## 한국외대 총장에 강기훈 통계학과 교수 선임

13대 총장… 산학연계부총장 등 역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이사장 김종철)는 8일 열린 이사회에서 강기훈 통계학과 교수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강기훈 총장 당선자는 1966년 제주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통계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당선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산학연계부총장, 사업본부장, 행정지원처

장 등을 역임하며 교내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왔고, 호주국립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 회장이자 기획재정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용인시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은행·통계청·한국연구재단 등 다수 기관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수상 내역으로는 옥조근정훈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있다.

/이현진 기자

##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고시 금지법 통과

영유아기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입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기 경쟁 심화가 영유아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도 함께 담겼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기에 과도하게 벌어지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공교육 혁신 등 ‘미래 교육도시’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년차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생태계 구축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년 차에 접어들며 공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교육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6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대학·지역기관이 연결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운 역량을 지역에서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자리 잡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를 열어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개한다. 행사에는 학부모와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여하며, 초·중·고와 대학, 공공기관 등 15개 기관이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 ‘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 산업 대비형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시는 관내 4개 대학(동국대·농협대·한국항공대·중부대)과 협력해 AI·로봇·스마트농업·항공우주·미디어영상 등 첨단 분야 체험 및 실습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지역에 스며든 복지관… 고립가구 지원 늘어

서울시, 지역밀착형 복지관 89개소  
생활권 중심… 취약가구 발굴 용이  
고립·취약가구 지원 2배 이상 증가

복지관 건물을 벗어나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는 서울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이 2021년 25개소에서 5년 만에 89개소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대응하는 지역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 내 공간을 발굴·조성 후 각종 복지사업·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공간형 31개소와 지역으로 나가서 민관협력체계에 기반한 동별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사업형 5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건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 동네로 직접 들어가 주민센터·교회·카페 등 생활권 거점을 중심으로 취약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지역 내 또 하나

의 작은 복지관’이다.

올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복지관별 평균 218.5명이었던 고립가구 지원 인원은 지난해 691.8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취약계층 지원 인원도 361.3명에서 741.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에서 함께하는 주민관계망 형성은 복지관별 연평균 112회(1079명) 참여하는 수준으로, 고립 상태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관계망 속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용 공간도 꾸준히 확대돼 현재 고정형 공간 47개소와 유동형 공간 201개소가 운영 중으로, 주민센터·교회·카페·경로당 등 지역의 다양한 생활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 인터뷰 결과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 전환 이후 주민들이 복지관을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위한 기관으로 인식하던 과거와 달리 ‘우리 동네 복지관’, ‘생활 속 사랑

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며 “사회복지사를 ‘안전지대’라고 표현하는 등 인식 변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5년간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8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중구 명동11길 14)에서 ‘2025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실천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실무자들이 복지관 건물을 벗어나 어떻게 주민을 만나고 신뢰를 쌓았는지, 주민센터와 어떻게 한 팀이 되어 일했는지 등의 실천 과정을 나눴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은 “복지관이 건물을 벗어나 지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라며 “이번 실천공유회가 과정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지역밀착형 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돌봄이 실현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중국방부, 미국 엑스에 공식 계정 개설…대외 홍보 활동 본격화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수출 허용…우려 목소리

/사진 뉴시스

▲일본 “러시아 압류자산 우크라 지원” EU 요청 거절  
▲‘발 등에 불’ 젤렌스키…“美, 영토 양보 등 압박 강화”

▲구테흐스, 태국-캄보디아 무력충돌 재개에 “민간인 보호와 자제” 촉구  
▲머스크 측근 NASA 국장 후보자 인준안 상원 상임위서 가결